

“내 마음은 오션 비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송○○ (M/49)
- 진단명: 간외담관암 (클라츠킨 중앙)
- 입원 경과: 2021년 1월 S대병원에서 간외담관암 진단. 수술 불가능하다는 말 들은 후 A병원에서 방사선 및 항암 치료함. 보존적 치료 유지 중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있어 A병원에서 중환자실 치료 받은 후 호스피스 권유 받음. 본원 입원 대기 위해 자택에서 PTBD 및 pleural effusion, ascites에 대해 pigtail 갖고 있던 분으로,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하다가 본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함.

<입원 시 상태>

- 활동 상태: ECOG 2점 / PPS 40%
- 의식 상태: 명료
- 통증: NRS 2-4점 (삼관 부위)
- 식이: 일반식이. 식이 섭취량 과거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소화 잘 안될 때는 본인이 조절해가며 식이하고 있다고 함.
- 신체 사정: 복부 팽만감, 다리 부종, 삼관 부위 근처 압통
- 활력 징후: 37.6°C의 미열 외에는 정상 범위
-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 미미함. 머리로는 환자의 상황 이해하며,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나, 환자 및 보호자(배우자) 모두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희망 있는 상태여서 호스피스 이용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을 설명함.

진료 부분

<병력>

- 2021.01 S대병원에서 간외담관암 진단, 복막 및 림프절 전이 소견 보여 치료 힘들다고 함. A병원으로 옮겨 방사선 및 항암 치료함.
- 2022.03 A병원에서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 및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 있어 중환자실 치료 받음.
- 2022.04.18 A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

미한 상태로 호스피스 권유 받아 본원 완화의학과 외래 진료함.

2022.05.03 A병원에서 항생제 집중 치료 중이라고 입원 1회 미룸.

2022.05.18 본원 호스피스병동 입원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 과정>

1. 복부 팽만 및 불편감 (평가)

- 말기 간외담관암 및 다발성 전이 소견으로 인한 복수
- 복부 팽만감 및 불편감 호소함.
- 평소 통증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 삼관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함.
- 모르핀 염산염 사용 후 오심, 구토 있어 모르핀 사용 거부함.

(치료 계획)

- 최저 통증은 1점, 최고 통증은 5점으로 심하지 않은 통증 호소함.
- 최고 통증 정도가 아니면 PRN 사용하지 않고 참는 편이라고 함.
- 전 병원에서 사용 중이던 펜타듀르 패치 25mcg 및 필요시 트리돌 50mg으로 조절 잘 되고 있다고 하여 유지하기로 함.
- 진통제 투여 15분 이내 통증 반응평가 시행하여 통증 점수가 감소되었는지 확인함.
- 추후 통증 악화 시 환자 및 보호자 면담 후, 수액에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sulfate 또는 oxynorm 혼합하여 지속적으로 투약 유지로 변경 가능성 있음을 설명함.

(반응)

- PRN 트리돌 투여 후 통증 호전 보였으나, 6월 22일부터 트리돌 사용 시 어지럼증 심하며, 이로 인한 불면 있었다고 하여 PRN 약제 케토락 30mg(2시간 간격)으로 변경하여 투여 시작함.
- 입원 초에 비해 통증 있을 시 통증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임.

#2. 실혈 및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거부감

(평가)

- 기저질환으로 만성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및 빈혈 있음.
- 입원 당시부터 피 섞인 복수 배액 됨.
- 5월 23일 소원성취 프로그램 진행 중 과식

후, 5월 24일 아침부터 소량의 혈변

(치료 계획)

- 라미나지액 지속
- 트라넥삼 사용 및 위장관 내 출혈에 대해 판토록 추가, 금식 시작함.
- 환자 및 보호자 식이 진행 및 수혈 요구함.
- 수혈 진행 시, 이에 따른 용적 과부하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컨디션이며, 이 경우 환자 상태 악화될 수 있음에 대해 면담함. 환자 적극적인 치료 원하는 대로 하다가 빨리 임종 맞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호스피스 치료에 대한 거부감 드러냈으나, 면담 후 우선 수혈은 빈혈로 인한 증상 생기는 경우, 증상 조절 위해 해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환자 식이에 대해 강력한 요구 있어 위산 자극되는 음식은 피하고 5월 27일 뉴케어로 시작하기로 함.
- 뉴케어 식이 시작 후 복부 불편감 있으나 혈변은 멈추었다고 함. 5월 30일 죽 식이 하고 싶다고 하여 영양팀과 상의 후 죽 시작함.
- 6월 3일 밥 식이 하고 싶다고 하여 영양팀과 상의 후 간경변 식이로 시작함. 식이 첫날 과식 후 소화불량 호소하여 다시 금식 권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식할 것을 당부함. 복부 불편감에 따라 본인이 양 조절하며 식이 진행함. 간경변 식이 맛에 대해 만족하여 일반식이로는 바꾸지 않기로 하였으며, 환자 원하는 간식에 대해 영양팀과 면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반응)

- 환자 지속적인 속 불편감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오히려 증상 완화에 도움 됨을 깨달아 6월 22일부터는 필요시 금식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환자 컨디션 악화에 따른 소화불량 및 하복부 통증 있어 금식 진행함.
- 이후 추가적인 혈변 없음.

- 혈액 섞인 복수 지속적으로 배액 되었으며, 약한 호흡 곤란 소견 (당시 Hb 4.3) 있어 적혈구 1팩 수혈 진행 후 환자 편안해 함.
- 호스피스 치료 전반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모습 보임.

간호 부분

#1. 수면장애

(사정)

- “밤에 자다 깨다 해요.”
- 낮 수면 길어지고 밤에 깊은 수면 못함.
- 밤 수면 시 작은 소리에 뒤척임 보임.
- 병실 소등하고 수면 환경 조성해 줌.
- 불면을 호소하는지 관찰하고 수면 양상 사정함.
- 조용한 환경 유지하며 빛, 소음, 감각자극 줄여줌.
- 불면 지속 시 미다졸람 2mg IV PRN 처방 있어 투약 원할 시 간호사에게 이야기 하도록 교육함.

(계획 및 중재)

- 자다 깨다 하였으나 비교적 만족스럽게 수면 하였다고 하며, 더 이상의 투약은 원하지 않아 정서적 지지하며 경과 관찰함.

#2. 지식 부족

(사정)

- “음식을 먹고 싶어요.”
-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보호자 말함.
- 음식 섭취 후 간헐적인 복통 호소함.
- 금식에 대해 환자, 보호자 불안감 있음.

(계획 및 중재)

-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설명함.
-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조절관리에 대하여 교육 책자를 통해 교육함.

- 필요시 주치의와 면담 연결하여 궁금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줌.
- 환자, 보호자의 불안 수용적인 태도로 경청하며 지지함.

(반응)

- 이해한다고 표현하나 같은 질문 반복하며 걱정하는 모습 보여 정서적 지지 및 교육 지속함.

#3. 통증

(사정)

- “아무래도 아픈데 계속 참는 것 같아요. 짜증도 엄청나게 내고 그래요.” 보호자 말함.
- 찌푸리거나 짜증스러운 표정 보이며 전반적인 비언어적 통증 양상 보임.
- 펜타듀르페취 50mcg 유지 중임.

(계획 및 중재)

- 발생 가능 한 통증 설명함.
- 비언어적 통증 양상 관찰함.
- 정서적 지지함.
- 돌발성 통증이 올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수시로 교육함.
- 처방된 PRN 진통제 케토락주 30mg IV 투여함.

(반응)

- 통증 호전되어 찌푸림 없이 안정 취하고 있는 모습임.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1남 2녀 중 둘째로 출생
- 기혼, 슬하 1남 1녀, 회사원(휴직), 건강보험
- 발병 전 철없이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내가 죽을병이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음.
- 자녀에 대한 미안함(앞으로 해 줄 것이 많은데 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갖고 있음.
-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만, “아들이 대학교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 ‘심청이(마음을 청하는 이의 간절한 소원) 소원성취 프로그램’ 안내를 들은 후 우는 모습 보였으며, 어떤 소원을 신청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 보임.
- 성격: 예민하고 치밀하며 리더십 있음.
- 병식: 말기 암 및 호스피스 케어 인지
- 심리·사회적 상황: 우울, 불안, 두려움(간성 혼수로 인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될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

<가족력>

- 배우자(50): 기혼, 슬하 1남 1녀, 전업주부,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증 소유하고 있어 틈틈이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하며 지내움. 환자 임종 후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 갖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이나 환자와 자녀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는 소망이 있음.
- 딸(22): 미혼, 대학교 3학년. 환자 상태 인지. 주중에는 아르바이트하며 용돈 벌어움.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 돌보고 있음.

- 아들(19): 미혼, 고등학교 3학년. 환자 상태 인지. 환자에게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모습 보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주 1회 정도라도 환자 면회를 통해 환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음.

<경제적 상황>

- 사보험(+), 자가(+), 저축액(+)
- 환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어린 나이에 빠른 승진을 했던 분으로, 회사에서 먼저 휴직을 권하고, 일정 금액 지속해서 지급해 주고 있음.

<임종 돌봄>

- 본원 장례식장 이용 예정.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납골당 안치 예정
- 상조(+), 영정사진(+), 사별가족 돌봄(+)

<문제 사정 및 개입>

- 심리 사회: 상기 환자 현재 자신의 상태 인지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지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심리·정서적 상담 시행 및 적극적인 요법치료, 자원봉사자 연계 시행함.
- 가족적: 환자의 가족들(배우자, 자녀들) 환자 상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남은 환자의 여명기간 동안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 있음. 이에 ‘심청이(마음을 청하는 이의 간절한 소원) 소원성취 프로그램’ 권유함.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17시 30분 ‘심청이 프로그램’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식사하는 시간 가짐. 주 1회

가족 면회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도모함.

- 경제적: 환자의 가족 저축액 및 환자가 근로 중이던 회사의 도움을 통해 생활 중이나 환자 사후에 가족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 연금 안내함.

- 임종 돌봄: 임종 후 계획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준비 할 수 있도록 가족 교육(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보) 시행함.

영양사 부분

<영양 검색 결과>

- 5월 19일 초기 영양 검색 결과: 양호군
- 5월 30일 영양 재검색 결과 불량군 (5일 이상 주치의 처방 금식 처방으로 인함)

<영양 관리>

- 5월 30일 (금식 후 처음 죽 시도) “반찬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영양사] 단계별 이행 시기가 필요하니 천천히 시도할 수 있도록 설명
- 6월 02일 (엔지니어는 중단했으나 뉴케어 아침까지 섭취) “여전히 묽은 변 봐요. 건망고, 건포도, 바나나, 산딸기, 토마토주스, 당근주스 등등 먹어도 되나요.”
[영양사] 말린 과일과 섬유소 함량이 많은 과일 제한. 제한하는 이유 설명
- 6월 03일 (치료식 변경에 따른 상담)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영양사] 간경변식 및 섭취 가능한 간식(흰 빵, 딸기잼, 두유 등) 설명
* GI bleeding 가능성
- 6월 07일 야식 섭취 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함.

-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보호자)
[영양사] 한두 손가락씩 음미하며 조금씩 먹기 설명
- 6월 10일 “김이랑 밥만 주로 먹고 있어요.” “참외는 안 되나요.”
[영양사] 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령 설명, 참외보다는 부드러운 바나나 권장
- 6월 16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다 적어주세요”
[영양사] 섭취 가능한 조리법 안내
소량씩+꼭꼭 씹어서+짜지 않고+맵지 않게+질긴 음식 섭취 제한 설명

영양사 의견

- 영양 보충 음료 처방: 엔지니어는 병원식 섭취량 증가 시 중단, 묽은 변 있을 경우 우선 제외 고려
- 묽은 변과 음식: 흰 미음, 흰죽과 물김치 국물로 시작하여 저자극 메뉴를 하나씩 추가 권장(lactulose 약이 묽은 변의 원인이라고 설명)
- ☆ end-of-life care에서 nutrition care는 영양 상태 개선이 아닌 comfort에 초점을 둬.

원목자 부분

<환자의 종교적 배경>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 전 A병원에서 신부님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환자의 모친이 가톨릭 신자이고, 배우자도 가톨릭 신자이지만 오랫동안 냉담을 하고 있었다. 환자가 성모님을 좋아해서 병동 팀

장 수녀님이 성모상을 선물로 드렸는데 무척 기뻐했다. 성모상을 모셨으니 묵주기도를 바치면 좋겠다고 권하며 환자와 배우자에게 묵주기도를 가르쳐드렸더니 때때로 묵주기도를 바치며 묵주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처음에 주일미사 참례를 하곤 했는데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봉성체를 해드렸고 봉성체 후 조용히 기도를 바치곤 했다. 미사참례를 못 해도 봉헌은 해야 한다며 항상 깨끗한 지폐를 준비해 두었다가 봉성체 후 꼬박꼬박 정성스레 봉헌하시는 분이였다.

<영적 돌봄>

입원 당시 환자는 하얀 이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얼굴과 눈에 황달이 심했고, 복수가 팽창해서 본인 말처럼 배가 터지기 직전인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이곳에 오기 위해 한참 기다렸는데 오니까 너무 좋다고 인사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수도 많이 빠지고 봉사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받으며 만족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기도를 드린 후 환자가 뜬금없이 자신은 아직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형제님 준비가 되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기다려 주실 거라고 응대한 후 무슨 까닭이 있는지 물었더니 아들과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주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빗나가 공부를 안 해서 많이 싸웠는데 부모로서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몸쓸 병에 걸려야 네 놈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한동안 울음을 삼키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S병원 응급실에 처음 입원했을 때 아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더니 이제 정신 차려 공부하겠다고 약속하며 통곡을 했다. 그 이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고3이라서 대학 입학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 아들이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면 안 되니까 지금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하며 펄펄 울었다. 울고 싶으면 그냥 소리 내어 울어도 된다고 토닥이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호자와 함께 울어버렸다. 그 이후 환자는 최선을 다해 견디며 식사를 해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음식에 집착을 했고 금식일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보호자도 의료진도 난감해하곤 했다. 그러다 죽이 나왔을 때 환자는 생기 가득한 표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새삼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여명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아 보호자와 팀장 수녀님과 의논을 한 후 환자가 아들과 몇 번이든 대면할 수 있도록 면회 계획을 세웠다. 아들과 아빠 쌍방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둘만의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제 네가 집안의 가장이니 잘해야 한다.'고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밖에서 들었노라 배우자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편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병동에서 기념사진을 담아 앨범을 선물했는데 굉장히 기뻐하며 사랑을 했다. '이 아이가 그 아들이에요. 참 착하게 생겼죠?' 하며 사진을 보여주어서 '그러네요. 전혀 속 썩일 친구로 보이지 않는데요.' 하며 공감해드렸다. 직장 동료들에게 받은 감사패와 손 편지 등등을 보여주며 뿌듯해하기도 했고, 그분들에게 일일이 답례품을 택배로 보내는 꼼꼼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어느덧 환자가 마음의 여유를 찾았구나 생각이 들 즈음 환자의 상태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임종 격리가 되면서 환자가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들과 딸, 배우자를 격려하며 이별 준비를 도왔다. 아들이 '아빠 저 괜찮으니까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속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엄마

와 누나랑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편안히 가세요. 감사해요 아빠!’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고, 모든 걱정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딸이 환자를 지지해드렸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천사들 손 꼭 잡고 하느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기도했다.

<마무리>

환자는 모든 것을 병실에서 꼼꼼히 챙길 만큼 책임감이 강하며 예민한 성향을 지닌 분으로 감정의 기복도 매우 심한 분이었다. 환자에게 있어 영적 돌봄의 가장 큰 이슈는 환자 본인과 아들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일이었다. 환자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아들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까 봐 본인도 그에 따른 죄책감에 사로잡

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만남을 적극 지지해주었는데 다행히 환자와 아들 서로가 몇 번의 대화를 통해 상처를 딛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예측한 바와 같이 환자는 본인의 성격대로 자신의 의지를 한순간에 내려놓게 되어서 임종기가 짧았다. 가족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임종 준비를 시켜드리며 마지막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 지지를 해드렸다. 임종 당시 미소 띤 얼굴로 아주 편안해진 환자의 표정을 지켜보며 하느님께 잘 가시리라는 희망으로 가족들과 함께 위안을 받았다.

주님! 베드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

요법 치료사 부분

<색채요법 진행: 5월 20일>

요법실에 오신 환자는 처음에는 나와 눈을 맞추지 않고 시작을 했다. 병이 많이 진행되신 것 같아 보였다. 환우는 평소예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요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지 더 노란색이 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푸른색은 무거운 느낌이 들고 모든 걸 받쳐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1남 1녀를 둔 환자는 어린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한다. 지방대를 나와서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인지 사장님도 인정해 주는 직원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승진 발령을 받고 대기 중 피검사 결과가 암으로 판정이 나와 바로 입원했다고 한다. 아내에게 승진하면 나오는 자동차를 선물하려고 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

환자는 얼마 전에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

았다고 하며 하느님께서 저희 아들을 바로 세우시려고 나를 데려가시는 것 같다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게임중독에 빠져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다는 아들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너무도 속이 상해서 늘 “내가 중병이나 걸려서 저 녀석 정신이나 들었으면” 이란 말을 늘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면서 아들도 내가 암이란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고3이 된 아들은 지금은 스스로 학교도 가고 정신을 많이 차린 것 같다고 하며 이젠 좀 안심이 된다고 했다.

내 마음 표현해 보기를 권해 드렸다. 환자는 망설임 없이 그리기 시작했다. ‘오션 비치’라는 제목을 붙이고 저 멀리 보이는 섬으로 아픈 이들이 다 이 배에 타고 가는 중이라고 했다. 마음이 몽클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지난날들이 스쳐 간다고 했다. 혼자 남을 아내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장가를 잘 온 것 같다고 했다. 병 수발을 열심히 해 주는 아내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환자와 상담하면서 처음과는 달리 웃음 지

으시고 눈을 맞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해지시는 모습을 느꼈다.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며 자기의 남은 시간을 받아드려서 지금은 한결 편안 하다는 환자를 보며 안심이 되었다.

자원봉사자 부분

환자와의 만남은 조금 까다롭다고 하여 서서히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차례 병실에 가서 인사만 하고 나왔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환자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타까웠다. 그러던 중 환자의 배우자가 요법을 좋아한다고 귀뜸해 주고, 환자를 위한 발 마사지를 요청하여 용기를 얻어 적극적인 자세로 환자와 부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발 마사지를 너무 좋아하는 환자는 매일 마사지를 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나는 베드로예요.”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가족에 비해 세례를 늦게 받았다고 하였다. “조금 일찍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라고 이야기하며 씩씩한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환자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크다고 하였다. 나는 마음이 아파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해 주며, 지금이라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를 방문하였는데 환자에게 우울한 모습이 보였다. 알고 보니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 못하기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였다. 배우자는 예민해진 환자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환자에게는 말없이 발 마사지를, 배우자에게는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사지를 하는 중에 영양사로부터

‘식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뿔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하며 먹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며 행복해하였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먹지 못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나 또한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마침 영양팀장님이 방문하셔서 여쭙본 후 구운 생김과 간장을 전달하니, 환자가 뿔 듯이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2022년 6월 28일 새벽, 환자는 조용히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봉사자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을 만났다. 봉사자들을 보자마자 평평 울기 시작한 배우자는 환자가 임종하기 전 까지 날 보고 싶어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환자의 어머니와 누나는 환자에게 너무 잘해주어서 고맙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앞으로 환자의 몫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지내보도록 권유하고 따뜻하게 안아드렸다.

나는 이 글을 쓰며 앞으로도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미사와 기도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늘의 별이 되신 모든 환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하기를 희망해 본다.